

# 성장 기반 구축, 사랑받는 국민 기업으로

## 현대건설(주)

2004년은 현대건설이 「경영 정상화 원년의 해」라는 기치를 내걸고 경영 투명성 확보, 인재 양성, 수주 역량 극대화, 효율적 조직 운영, 고객 만족 및 주주 이익 극대화를 통해 실적 호전과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여 한국 건설 산업을 대표하는 명가(名家)로서 화려하게 부활한 한 해였다.

또한 현대건설은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관심 아래 신입 사원을 전년 대비 확대 채용하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무한 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과 과감한 제도의 개선과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술력과 노하우에 바탕을 둔 원가 절감과 수익 창출로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 구직자 입사 희망 건설 회사 인기 순위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건설사를 대표하는 회사로서의 위상이 변함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 한해의 경영 목표를 「성장 기반 구축의 해」로 설정하였으며, 수주·매출의 극대화, 수익 증시 내실 경영 추구, 경영 투명성 확보, 핵심 기술 역량 강화, 기업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목표 달성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 2005년 원자력계 전망

지난 2004년은 KEDO 경수로 공사 중단 지속, 원전 수거물 처리 시설 부지 선정 표류,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착공 지연 등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산업계의 침체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원자력 산업계의 어려움이 2005년도부터는 하나 둘씩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차로 나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2005년도부터는 원자력 산업계에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2월 16일부터 교토의 정서가 발효되고 중·단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원자력 에너지로의 낮은 대체 가능성을 볼 때 향후로도 원자력 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신고리 1·2호기 착공, 신월성 1·2호기 착공, 신고리 3·4호기 발주, 원전 수거물 처리 시설 부지 선정 등으로 2005년이 제2의 원자력 중흥기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 중점 추진 계획

현대건설이 원전 건설에 있어서 우리나라 원전 역사와 함께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에서 현재 가동중인 총19기 중 12기를 건설(2기는 시공 컨소시엄 대표사로 참여)하였고, KEDO 원전 1·2호기와 올해 초 착공 예

정인 신고리 1·2호기 등 4호기에 시공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압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1차 계통 및 2차 계통, 토목/건축/기계/전기/시운전 공사의 일괄 시공뿐만 아니라 원자력 연구 시설,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증기 발생기 교체 공사 등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해서 풍부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 우수한 건설 기술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원전 시공의 선두 주자이며,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30년 이상 원전 건설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유일무이한 회사라 하겠다.

세계적인 원자력 건설사로서, 국내 원전 건설의 확고부동한 선두 주자로서, 또한 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기술 개발의 전도사 역할로서, 국내 원자력 산업의 순탄한 발전과 제도 및 부흥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올해는 아래와 같은 중점 추진 사항을 강력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 1. 신고리 1·2호기 주설비 공사 의 성공적 수행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착공 및 공사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리 1·2호기는 지금까지 국내에 건설되어진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단 기간의 공기로 건설될 것이며,

초기 대규모 토공량 소화, 심층 배수로 건설, Deck Slab 구조물 공법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대건설은 30년이 넘는 원전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총집중하여 초기 토목 공정부부터 적기 시공 및 완벽 시공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다.

5·6호기 완공 이후 원자력 시공에 참여했던 경험 직원들을 원자력 시공에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경험과 기술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완벽한 사전 시공 준비를 기하기 위해 많은 경험 인력이 지속적으로 본사 및 현장에서 시공 준비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로써 본공사 수행 시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 수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신고리 3·4호기 건설에 주도적 참여

현대건설은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 업체 다변화 및 공동 참여 정책으로 타시공사들이 신규로 원전 건설 참여시 시공사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한 해외 진출 및 국내의 신형 원자로 건설, 연구용 원자로 건설, 시설 교체 공사 등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공법 적용, 공기 단축, 애로 사항 해결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원전 건설의 시공 분야를 이끌어왔다.

이는 우수한 기술 인력과 타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풍부한 시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

며, 올해 발주 예정이며 신형 APR-1400 원자로로 설계·건설되는 신고리 3·4호기에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원전 건설 시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척자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3. 원전 기술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참여 및 추진

1970년대부터 30년 이상 국내 원전 건설을 주도하면서 축적한 시공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해외 원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 원전 신규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와 기술 자립에 대한 공동 연구 참여, 베트남 릴라마사와의 MOU 체결(2004.5.27) 및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 원전 기술 전람회 참가 등 현대건설의 우수한 원전 건설 기술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통해 동남아 신규 원전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최초 원전 도입을 목표로 사업 준비중인 인도네시아의 원전 시공 사전 준비 공동 연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마두라섬에 일체형 원자로(SMART) 이용을 위한 담수화 시설 예비 타당성 조사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원자력연구소·인도네시아 원자력연구소



베트남 릴리마사와의 MOU 체결. 현대건설(주)은 베트남 원전 신규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와 기술 자립에 대한 공동 연구 참여, 베트남 릴리마사와의 MOU 체결 및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 원전 기술 전람회 참가 등 우수한 원전 건설 기술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통해 동남아 신규 원전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

(BATAN) 등과 함께 현대건설도 건설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의 CANDU형 원자로인 체르나보다 원전 3호기 공사 재개를 위해 전문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유럽 원전 시장에 우리의 건설 관리 기술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내 원전 관련 기관과 함께 해외 원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외 원전 시장에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4.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발주를 제외하고 원전 수거물 처리 시설과 원전 성능 개선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원전 수거물 처리 시설은 19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책 사업으로 중·저준위 수거물 저장 시설은 2008년 즈음에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 당위성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상업 운전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도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나오리라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004년 7월 14일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원전 안전마크」를 '원전 격납용기 절개 및 재밀폐 공사 기술'로 수상하면서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상기 신규 사업의 수주와 성공적 공사 수행에 매진할 것이다.

#### 5. 원전 시공 인력 지속적 양성 및 기술력 증진

현대건설의 자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인재가 아닌가 싶다.

30여년간의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하여 양성된 수많은 원전 건설 경험 직원들을 원자력 시공에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시공 기술력을 일관되게 유지시키고자 「원자력 사업단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고리 1·2호기 시공 준비 업무와 시공 경험 정리, 기술력 공유를 위한 자체 교육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원전 시공 전 분야에 대해 '원자력 Handbook'을 제작하였으며 경험 및 기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술 자료를 토대로 직원 상호간 업무 역량 확대, 신입 사원 등 원자력 미경험자 교육, 본공사 수행시의 시행 착오나 동일 발생 문제 재발 방지를 꾀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공 기술력 증진 및 원전 경쟁력 향상의 디딤돌이 되어 국내 원전 시공 기술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현대건설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현대건설만큼 원전 건설을 30년 이상 계속 연속되게 시공하고 있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없을 것이다.

훌륭한 인재가 우리의 모든 자원이고 기술력이라는 인재 중심 경영으로 앞으로도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6. 원자력 홍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

지난 몇 년간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로 인해 원자력 사업을 포함한 여러 대책 사업이 연기되거나 차질을 빚어왔으며,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원자력 산업계도 착공 지연에 따른 비용 손실, 기술 인력 유출, 사회적 갈등 요인 발생 등 많은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향후 더욱 더 사회적인 합의 및 원자력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



원자력 안전마크 획득. 현대건설(주)는 세계적인 원자력 건설사로서, 국내 원전 건설의 확고부동한 선두 주자로서, 또한 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기술 개발의 전도사 역할로서, 국내 원자력 산업의 순탄한 발전과 재도약 및 부흥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다고 생각되는 바, 현대건설은 원자력 현장 주변 지역 주민, 임직원 및 가족, 협력사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홍보를 출발점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의 날 등과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산업 발전에 있어서 주역이자 동반자로 반드시 참여와 이해를 하여야 하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건설사로서 안전하게 시공을 하고 있다는 홍보와 함께 상호간에 부족한 이해의 간격을 좁히는 데 노력할 것이다.

### 맺음말

현대건설은 지난 30여년간의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경험과 자타가 공인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될 신고리 1·2호기 건설과 현재는 잠정 중단

된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재개될 KEDO 원전 1·2호기의 유지 보수 공사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신형 APR-1400 원자로인 신고리 3·4호기와 신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정부와 발주처 및 관계 기관에서 추진중인 해외 원전 진출에도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인재 양성과 기술력만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기치 아래 인재 양성과 기술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2004년이 여러모로 원자력 산업계의 어려운 한 해였다면, 올해는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원자력계가 다시 활성화되고 도약하는 새롭고 활기찬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